# 광주시, 세계수영선수권 실사 준비 총력

## 유치신청서 공식 제출… 4일 마감 中 접수 주목

## 다음달 실사시기 맞춰 동아수영선수권 개최

광주시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르면 오는 4월말로 예정된 현지실사 대비 총력전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2일 국제수영연맹(FINA)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신청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유치신청서 마감일은 오는 4일이다.

현재 광주와 중국 선전, 일본 도쿄, 헝가리 부다페스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브라질 상파울루 등 모두 6개 도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며, 일본 도쿄는 최근 현지 언론을 통해 포기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이다.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함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추진한 일본은 올림픽 유치에 실패할 경우 수영대회만 치르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애초 목적인 FINA 소속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일부 달성해 포기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포기 의사가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광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의 유치신청서 제출 여부다.

중국은 최근 들어 급성장한 경제자본력으로 국제대회 유치전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유치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오는 4일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도 지난 2011년 상하이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한 만큼 8년 만에 또 한번 재개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이번 유치전은 포기한 뒤 차기대회 유치의 실익을 얻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유치를 포기할 경우 광주의 유치 전망은 한층 밝아지게 된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대륙 순환 개최 방식을 따르고 있는 만큼 광주가 아시아 대표도시로 나설 경우 유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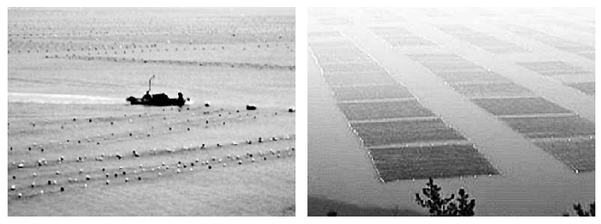
2011년 중국 상하이, 201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2015년 러시아 카잔, 2017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이어 2019년은 이변이 없는 한 아시아 도시가 개최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는 오는 4일 유치신청국에 따라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4월말에서 5월로 예정된 FINA의 현지 실사에 대비한 시스템 마련에 돌입했다. 시는 특히 FINA실사단이 광주를 방문하는 시기에 맞춰 국내 최대규모인 동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염주실내수영장을 긴급 개보수중이다. 올해 동아수영선수권대회는 울산에서 개최되기로 협약돼 있었으나, 강운태 광주시장이 울산시장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 개최권을 광주로 가져왔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 최첨단 수영장을 짓고 있는 만큼 세계수영대회를 유치해도 경기장 신축 없이 개최가 가능하다"면서 "추가 시설비용 없이 200여 국에서 2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를 유치할 경우 국제도시 광주의 도시브랜드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도 막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는 오는 7월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 총회에서 집행위원 과반 득표로 결정된다. 광주발전연구원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2조4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원, 고용창출 2만4000여명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전남도가 어지럽게 퍼져 있는 양식장을 '바둑판 논'처럼 정리하는 양식장 재배치 사업에 나섰다. 사업 전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완도 앞바다 전복 양식장(왼쪽)과 사업 후 정리된 양식장의 모습. 〈전남도 제공〉

# 바다 '경지정리'

## 道-완도 무분별 전복양식장 18억 들여 재배치

전남도가 18억원을 들여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는 완도 전복 양식장을 가지런하게 정돈하는 '바다의 경지정리'인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는 1일 "어장의 불규칙한 개발로 좁은 공간에 어패류를 키우는 밀식양식이 이뤄지고, 환경 오염 등이 발생해 완도 일대 전복양식장을 자연친화형으로 재구성하는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완도 해역의 전복양식장은 새마을운동 이전의 논처럼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10년 이상 한 곳에서 양식을 하다 보니, 오염도 심각하다. 양식 장비와 전복 먹이인 다시마가 햇빛을 가려 유기물 분해가 더디고, 퇴적물도 가득 쌓여 있는 상태다.

무분별한 양식은 전복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양식을 한 어가일수록 전복 폐사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

양식장이 어지럽게 몰려 있어 소형 태풍에도 피해가 크고, 조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 오염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에 전남도와 완도군은 각각 6억원을 들여 지난해 11월부터 완도군 연안어장 1만2244ha를 대상으로 어장 실태조사와 현황측량 등을 마치고 최근 본격적인 어장재배치에 나섰다.

각 소유주의 논을 측량해 바둑판 형태로 만들어 나눠주는 경지정리처럼 어장 크기를 미리 조사해 양식장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또 조류의 흐름을 파악해 충분히 물이 이동할 수 있게 했고,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오랜 기간 양식을 한 곳을 피해 새로운 어장을 만들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체 예산 중 부족분 6억원은 정부에 지원 요청했고, 친환경 수산을 위해 어장 재배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한·터키 FTA 다음달 발효

## 10년내 상품관세 철폐… 공산품 7년내 없어져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다음달부터 발효된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9번째로 체결한 FTA로 한국전 참전국인 터키는 우리나라가 46번째로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터키 양국이 지난해 8월 서명한 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필요한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나 5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1일 밝혔다.

FTA가 발효하면 양국은 10년이내 수입액 기준으로 거의 모든 품목(1만1000여개 추산)의 상품 관세가 사라진다. 양허율(관세철폐 비율)은 우리측이 99.6%, 터키측은 100%다.

공산품은 7년 이내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농산물은 민감성을 고려해 품목수 기준으로 40.7%를 양허에서 제외했다.

한국과 터키의 지난해 교역 규모는 수출 45억5200만달러, 수입 6억7200만달러 등 총 52억2400만달러에 달하며 무역수지는 38억79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터키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금액순으로 합성수지(3억9500만달러), 승용차(3억6500만달러), 자동차부품(3억1100만달러) 등이다. 주요 수입품은 기타석유제품(2억9300만달러), 자동차부품(6500만달러) 순이다.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과의 경제 네트워크가 튼튼해 우리 기업의 유럽·중앙아시아·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지역으로의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곧바로 FTA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해 1년 이내에 타결지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 "2015년까지 KTX 호남선 증편 어렵다"

## 김동철 의원 증편 요구에 국토부 답변

국토교통부는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더라도 당장은 호남선 증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동철(광주 광산 갑) 의원은 1일 "호남선 KTX 노선 좌석이 부족해 열차 이용객들이 애를 먹고 있고, 2015년이 되면 고속버스, 항공기 교통수요를 모두 KTX가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데 대해 국토부는 "수도권의 병목현상이 해결돼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다만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대로 호남고속철의 증편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수서발 고속철도는 ▲국토부, 서울시, 강남구의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의견 상충 ▲수서역, 삼성역 출발역 논란 ▲GTX(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논란 등을 빚고 있으며, 개통시기는 2015년 초에서 2015년 10월 정도로 연기됐다.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총 공정률은 60.4%로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노반 본선공사를 마치고 궤도·전차선 등 후속공사를 본격 시공해 공정률을 77.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

**박준영지사 "아름다운 완도항 최선 다해달라"** 시·군순방에 나선 박준영 전남지사가 1일 오후 완도읍 군내리 완도항 건설현장에서 김종식 완도군수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아름답고 튼튼한 항만을 만들 수 있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민주평화광장 박석마당 디자인·아이디어 공모

광주시는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주변 민주평화광장 박석(薄石)마당 시공과 관련해 디자인·아이디어를 이달 말까지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 말께 완공 목표로 7000여㎡ 바닥에 얇은 돌을 까는 작업인 박석마당 공사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기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분수대 광장 일대 전체를 디자인화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모사업 기본방향을 ▲민주·인권·평화도시로 5·18민주화 운동의 장소성과 역사성 재창출에 부합하고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계 컨셉트와 금남로 등 주변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국내외 다양한 방문객이 모여드는 공간기능과 어울리는 디자인 등을 제시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의 공모지침서를 내려받아 제안신청서를 이메일, 우편, FAX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작은 심사를 거쳐 대상, 금상, 은상 각 1명, 동상 2명 등 총 5개 작품을 선정해 표창한다.

당선작은 민주평화광장 조성 때 분수대를 중심으로 모자이크 시공 등 영구적인 기념물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한다./박진표기자lucky@

## 광주U대회, 기념품 제조·판매업자 모집… 9개 품목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강운태)가 대회 인지도를 높이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공식 상품화권 사업자를 모집한다.

공식 상품화권 사업은 기업에게 대회 상징물인 엠블럼과 로고, 마스코트 등을 이용하여 기념품 등 특정상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사용료(로열티)를 받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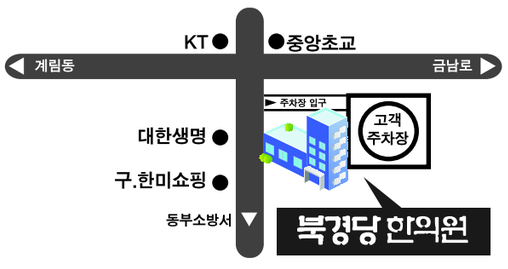
광주U대회의 공식 상품화권 대상 품목은 봉제류, 잡화류, 생활용품류 등 총 9개 품목군으로 기념품 제조업, 캐릭터 라이선스업 등 해당 품목의 제조 또는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조직위는 오는 10일 사업 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7일과 8일 이틀간 사업자 참여 제안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U대회 홈페이지(www.gwangju2015.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는 오는 2015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70개국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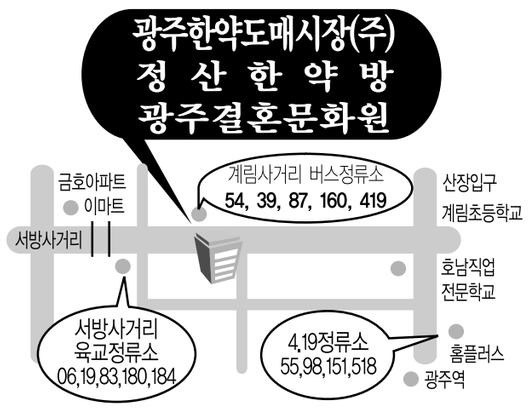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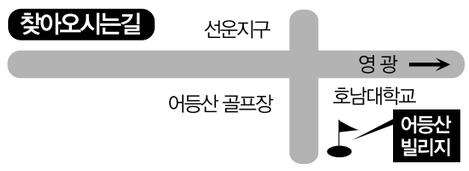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중-26%호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망치로 부셔먹는 독일전통과자
Schnee Pang(슈니팡)
& 버블팡(버블음료)
3호점 슈니팡&버블팡 메가박스 광주점 4월 5일(금)14시
파레스 호텔
(구)런던약국사거리
민속촌
메가박스 영화관(2층) 개업사은품 슈니팡 3개 구매시 버블팡음료 1잔 무료증정
무진주
4호점 순천 연향점 4월 20일(토) 14시
5호점 광주 전남대점 4월 26일
6호점 전남 함평점 4월 26일
7호점 광주 문흥점 4월 26일
8호점 광주 봉선점 4월 26일
9호점 광주 상무점 5월 3일
10호점 광주 수완점 5월 3일
줄을 서서 사먹는 슈니팡&버블팡
광주 · 전남 가맹점 모집
062)523-1001, 010-5603-4709

이전안내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 산 한 약 방
한약 · 국산 · 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활(땅두릅)묘목 분양
이전약도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553-14
062)223-3399 / 223-6664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 · 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 입니다.
2. 각 필지별 상 · 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62)952-5577